



식품업계 433억 달러 소스시장 '정조준' L1



Life

CJ제일제당 기업지식재산대상 장관상 L4



디자인산업에 5년간 1723억 투입... '한국판 이케아' 키운다

서울시, 디자인 산업 계획 발표
디자이너 양성 전문 교육기관 운영
DDP·홍대·성수 디자인 거점 조성
납품 걱정 없는 '안심보험' 도입도

디자인산업 4대 핵심전략 과제

서울형 디자인스쿨 조성·운영 디자인교육, 판로개척, 네트워킹 원스톱 지원	디자인기업 안심보험도입 파손 또는 제품 납품 실패 시 제작비 최대 60%까지 보장	제조-디자인 기업융합 통한 상생성장 제조·기술 업체 연결 기업간 협업 지원	서울디자인위크(가칭) 확대 개최 세계 3대 디자인 산업박람회로 발전 자료/서울시
--	---	---	---

서울시가 아름다운 디자인을 내세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케아'나 '무인양품'과 같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역량 있는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기관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6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자인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자인 산업 기반 구축 ▲디자인 기업 자생력 강화 ▲기업 간 융합 ▲서울 디자인 국제적 확산을 골자로

한다. 시는 향후 5년간 17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디자인 기업을 키워 4089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2346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서울 도심에 디자이너와 기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홍대, 성수에 디자인 기업 지원 거점을 만들어 투자 유치용 전시·판매, 디자인 기업 육성, 인지도 확보의 장으로 활용

할 예정이다. DDP와 홍대 서울디자인 창업센터를 활성화하고, 성수에는 2026년까지 980㎡ 규모의 팝업스토어를 마련해 디자인 제품 상설 전시 및 비즈니스 상담 창구로 이용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서울 D 투게더(가칭)'를 구축해 디자인 교육, 판로 개척, 네트워킹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최고급 강사진이 포진한 온·오프라인 디자인 전문 교육 플랫폼 '서울형 디자인

스쿨'도 가동한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비롯한 국내외 교수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수준 높은 강의를 선보인다.

디자인 기업들이 납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안심보험'도 도입한다. 시제품 개발 중 발생한 파손 및 도난이나 디자인 제품 납품 실패 시 제작비의 최대 60%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예컨대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제작할 때 3%에 해당하는 150만원(본인 105만원+시 45만원)을 보험료로 내면 만일의 사태 발생 시 60%에 달하는 3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보험료의 30%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5년간 1500개 업체를 지원한다. 현재 신한EZ화재보험과 상품을 공동 개발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스타트업부터 전문 기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한 새싹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사업화를 돕는다. 창업 초기 기업에는 비즈니스 모델과 시제품 개발을, 창업 3년 이상 도약 기업에는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투자 유치·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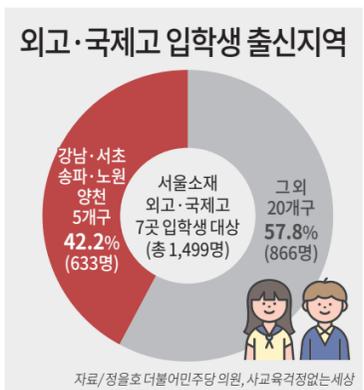
비용 문제로 디자인 개발을 망설이는 기업들에게는 제조·기술 업체를 연결해 상생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에 협업 촉진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디자인 개발비, 해외 판로 개척,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전시 중심의 행사였던 '서울디자인위크'를 글로벌 비즈니스 장으로 개편해 세계 3대 디자인 산업 박람회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외고·국제고 입학, '부의 대물림' 여전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입학생 42% 노원·강남 등 사교육과열지구 출신 부모 배경·경제력 따라 쏠림현상 발생



서울 소재 7개 외고·국제고 입학생 10명 중 4명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 양천구 등 5개 사교육과열지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 7개고 입학생은 1484명으로, 이중 39.8%에 해당하는 591명이, 2024학년도는 전체 입학생 1499명 중 633명(42.2%)이 5개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율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입학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외고(6개)·국제고(1개)의 2023·2024학년도 입학생 출신 중학교를 분석한 결과다.

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각각 171명, 195명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135명, 144명) ▲송파구(117명, 118명) ▲양천구(100명, 110명) ▲서초구(68명, 66명) 순으로 많았다.

이런 쏠림현상은 고교서열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율호 의원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입학 과정에서도 부모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어느 고교에 가더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

용인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 '최우수'

6년 연속 선정... 국비 10.5억 확보
처인구 261곳에 태양광 설치 지원

용인특례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국비 10억 5329만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는 평가 등급을 A~E 등급으로 나눠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데 시는 최우수 등급(A)을 받아 국비를 최대 10억 5329만 원에 달하는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고 6년 연속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년간 사업 추진 실적이 좋은 데다 시민 만족

도 향상을 위해 사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0억 5329만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을 들여 처인구 포곡읍·양지면·동부동 일원 주택과 일반건물 등 261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 980kW와 지열 발전 설비 542.5kW, 태양열 집열판 76㎡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공모에 참여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가동하면 연간 1845MWh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화석에너지 371toe(석유환산톤)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용인(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 신림5구역, 3900세대 주거단지 조성

신통기획 확정... 최고34층 대단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최고 34층, 39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신림5구역(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주변 다양한 장소로 편리하게 연결되는 단지 구축 ▲지형

차이를 활용한 입체적 공간 디자인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 ▲삼성산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과 도립천에서 열린 경관 창출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대상지 주변 서원역, 삼성산, 도립천 등 다양한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조성토록 했다. 대상지 경계부 순환 도로와 주변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정비하고, 공공 보행 통로를 만들어 이

동 편의를 제고했다.

아울러 시는 기존 급경사 지형의 특성을 활용한 입체적 주거 단지를 계획했다. 지형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단과단 사이 공간을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테라스하우스 등으로 활용,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상지 북쪽 일대를 도립천과 연계해 주거 복합 용지로 계획하고, 생활 공유 가로를 만들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2 | 해질 / 17:52

10월 17일 (木)
음력 : 9월 15일

수도권 날씨
14 ~ 2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노벨문학상' 한강 책, 엿새 만에 100만부 팔렸다 /사진 뉴시스
▲창단 40주년 앞둔 서울시오페라단, 11월 첫 '라보엠' 공연

▲대학야구에 ABS 적용...대학야구연맹, 스포츠투아리와 업무협약
▲무릎 다친 삼성 구자욱, 일본행...“가을야구 출전 위해 전념”



▲'과학·예술 융복합'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5일 개막
▲FC서울서 '우승' 원하는 링가드 "팀에 성취감 가져다 주고파"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